동지기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입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낮이 점점 길어져 우리 조상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삼았다고 합니다.

동지는 태양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동지에 왕들은 신하들에게 동문지보同文之寶라는 도장을 찍은 달력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풍속이 이어져 법주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에서도 동지에 달력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선동력夏扇冬曆이라고 해서 윗사람이 하지에는 부채를 동지에는 달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동지에 사찰에서는 새로운 기운을 통해 부처님께 가정의 행복과 평온을 기원하는 동지불공을 올리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불자님들께서도 부처님 전에 자기 자신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다면 참회하고 나 자신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입재 - 불기 2566년 **12**월 **16**일(음 11월 23일)
회향 - 불기 2566년 **12**월 **22**일(음 11월 29일) 동지

■ **동 참 금** : **3**만원 (팥죽용 팥, 찹쌀 공양 사전 접수받습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2|11

부처님 말씀 이웃으로 인해 자비심을 낸다 / **이달의 법문** 수행자의 마음가짐 / **주지스님 법문** 복전 / **수행여화** 가을이 더 바쁘다 / **감로의글** 무설설 / **걸망메고** 선불교의 사대종지 / **법주사 소식** / **법주사 행사일정** / **수능백일기도** / **다도회 합창단원 모집** / **동안거 백일기도**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기도** / **생전예수재 49일기도 봉행** / **동지기도**



이웃으로 인해 자비심을 낸다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켜 주며,
어둔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한다.
이와 같이 보살은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이웃의 뜻에 따르는 적은 곳 부처님께 순종하여 공양하는 일이 되고,
이웃들을 존중하여 받드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이 되며,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이웃으로 인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넓은 벌판에 서 있는 큰 나무의 뿌리가 수분을 받으면 가지와 잎과 열매가 무성하듯이,
생사 광야의 보리수도 이와같다. 모든 이웃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며,
자비의 물로 이웃들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보살이 자비의 물로 이웃들을 이롭게 하면 그 위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므로,
보리는 이웃에게 딸린 것이며, 이웃이 없다면 보살은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웃에게 마음을 평등히 함으로써 원만한 자비를 성취하고, 자비심으로 이웃들을 따라줌으로써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보살은 이와 같이 이웃을 따라줘야 한다.
허공계가 다하고 우리들 이웃의 세계가 다하고 이웃의 업이 다하고 이웃의 번뇌가 다할지라도
나의 따르는 일은 다함이 없을 것이다.
순간마다 계속하여 끊임 없어도 몸과 말과 뜻에는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2 11 | 통권 370호



2 부처님 말씀 이웃으로 인해 자비심을 낸다
4 이달의 법문 수행자의 마음가짐 법주사 조실 월서 대종사
10 주지스님 법문 복전 정도 스님
12 수행여화 가을이 더 바쁘다 현진 스님
15 감로의글 무설설 편집부
16 걸망메고 선불교의 사대종지 진정 스님
18 법주사 소식
19 법주사 행사일정
20 수능백일기도 / 다도회 · 합창단원 모집
21 동안거 백일기도
22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3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24 동지기도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6(단기4355)년 11월호 통권 370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수행자의 마음가짐

월서 대종사 법주사 조실



세존께서 인행시에 머리카락을 땅에 펴고 연등 부처님께 꽃을 바치니
연등 부처님이 보시고 머리카락을 편 곳에서 대중을 멈추게 하시고
땅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되
"이 조각 땅에 절을 하니 지으라."
하셨다. 이때 대중 가운데 현우라는 장자가 풋말을 하나 들고 와서
부처님이 가리킨 땅에 꽂고 말하기를
"절을 다 지었습니다."
하였다. 이때 하늘 무리가 꽃을 뿌리며 찬탄하기를
"저 사람이 큰 지혜가 있구나."
라고 하였다.

이 이야기는 〈인과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유명한 설화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연등 부처님이 계실 때 선혜라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꽃을 공양하기 위해 꽃을 사러 나섰습니다.
그러나 모든 꽃은 이미 팔려서 꽃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선혜는 실의에 빠져서 돌아오는 길에 구리 선녀라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일곱 송이의 꽃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혜가 팔기를 청하자
자기도 공양을 올려야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선혜가 너무나 간절하게 꽃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내생에 부부가 될 것을 약속하고 다섯 송이를 팔고 나머지 두 송이는
자기 몫으로 공양을 올려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연등 부처님이 많은 제자와 같이 도성에 오셨습니다.
왕은 부처님이 오시는 길에 양탄자를 깔고 정성으로 마련한 꽃을 뿌리며 공양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대신이 마련한 양탄자로는 진흙을 다 덮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혜는 얼른 꽃을 공양한 다음 머리를 풀어 진흙을 덮고
그 위로 부처님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은 선혜에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사바세계에 태어나
석가모니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주셨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것 중 일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수행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큰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혜선인이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은 것은 왕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처럼 꽃을 많이 공양하고
양탄자로 진흙을 덮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수기를 받는다면
돈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부처가 될 것입니다.
선혜선인이 수기를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는 하심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진흙 바닥에
머리를 덮는 마음이야말로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어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즉 세존世尊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불교에서는 하심이라고 합니다.
자기라는 생각을 다 버리고 비운 것을 말합니다.

〈금강경〉에도 나오듯이 부처님은 과거 인행시에
인욕 선인으로 있을 적에 가리왕이 시험하기 위해
몸을 갈기갈기 찢어도 미워하는 마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부처님은 더 이상 무상한 이 몸에 애착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이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떤 욕된 일도 참아내는 인욕 선인처럼
자기 마음을 조복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요, 하심입니다.



二六時中常逼擱
收來放去急加鞭
情亡不覺工夫到
打破虛空只一拳

열두 시간 가운데 항상 바짝 달라붙어
거두고 놓아 버리되 빨리 채찍을 가하라.
정이 없어지면 모르는 사이 공부가 돼서
허공을 때려 부수는 주먹 하나만 남으리라.

우리나라에도 구정선사九鼎禪師라는 스님의 수행담이 유명합니다.
옛날 비단장수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 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산마루에 이르니 한 스님이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반 시간이 넘게 서 있는 것을 본 비단 장수는 호기심이 생겨
스님께 왜 그렇게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중생들에게 공양을 베푸는 중이네."
"무슨 공양을 누구에게 베푼다는 것인지요?"
"옷에 있는 이와 벼룩에게 따뜻한 피를 먹이는 중이네."
"그런데 왜 움직이지 않고서 계십니까?"
"내가 움직이면 그놈들이 피를 빨아 먹을 수 없거든."

스님의 말을 듣고 비단장수는 큰 감동을 하였습니다.
비단장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님을 따라갔습니다.
스님이 간 곳은 오대산 월정사 동쪽에 있는 동관음東觀音이라는 암자였습니다.
비단장수는 스님에게 제자로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나와 같이 있으려면

내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조건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스님은 다음 날 비단장수를 불러 부엌에 있는 가마솥을
다른 아궁이 쪽으로 옮겨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비단장수는 스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다음 날 아침 무슨 변덕이 났는지 다시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청년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아홉 번이나 했습니다.
그사이 비단장수 행자는 화도 나고 산에서 내려갈까 생각도 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마음속의 모든 번뇌와 아만심을 극복하고 어떤 경지에 부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을 성취했습니다. 노스님은 마침내 그의 도를 인정하고
법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솥을 아홉 번이나 고쳐 건 끝에 도를 이루었다고 해서 구정九鼎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구정 선사의 일화입니다.
도를 이룬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 구정선사는 아홉 번 바꾸어 걸면서 본래 청정심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본래 청정심으로 마음을 바꾸고자 합니까?
제가 일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욕심과 진심과 치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심하고 또 하심 하면 그 자리에서 청정법신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人我山崩處
無爲道自高
凡有下心者
萬福自歸依

나와 남이라는 차별이 끊어지면
공부하지 않아도 도는 절로 높아지네
자기를 능히 낮출 줄 아는 이에게
만복은 스스로 굴러들어오네.

주지스님 법문

복전福田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부처님께서는 나를 받들어 공양을 올리는 일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더욱 수승한 복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福을 바랍니다.
나의 福, 내 가족의 福,
더 많은 복, 더 큰 복을 위해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를 받들어 공양을 올리는 일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더욱 수승한 복전이라 하셨습니다.
일체 모든 생명은 평등한 존재이며
서로 의지하고 생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게
올리는 공양은
결국에 나에게, 내 가족에게 올리는
공양과 같습니다.

가을이 더 바쁘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간밤에 비바람 치는 소리를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마당 곳곳에 낙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몇 날 며칠 온 도량의 낙엽을
말끔히 치웠는데 그 일이 허사가 되었다.
마당을 정갈하게 하는 일은 몇 시간의 노동이
필요하지만 어지럽히는 것은 큰바람 몇 번 불면
끝 난다. 이것만큼 힘 빠지는 일도 없다.
그렇지만 바람을 원망하거나 탓해서 무엇하랴.
오전 내내 비질을 하며 치웠다.
차근차근 정리하다 보면 다시 고요한 침묵의
공간이 된다. 가을날의 마당은 정갈해야
더 평화롭다. 이러하므로 날마다 나무 아래
떨어진 낙엽 쓸어내는 일이 일과가 되었다.
이상하게 가을이 더 바쁜 것 같다.
눈만 뜨면 할 일이 보인다.
'추승구족秋僧九足'이란 말이 있듯,
가을에는 스님네의 다리가 아홉 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도저히 두 개의 다리로는
부족한 것이 수행자의 가을 일상이다.
감나무 아래에 맥문동이 피었다 졌는데
마음먹고 낫으로 베어냈다.
머리숱이 가득해서 베어내지 않으면
떨어진 감잎과 엉키어 지저분하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돌 틈의 풀까지 잡아주고 나니
그 주변이 깔끔해졌다.
잠깐 쉬다가 법당 뒤 잔풀도 정리했다.
가을 풀은 키를 낮추어 촘촘히 번져 있다.
그저께는 밭에 내려가 들깨를 베어 말리는
작업을 했고, 그 자리에 시금치 씨앗을 심었다.
이제 첫서리가 내린 뒤 서리태 콩을 수확하면
밭일은 손댈 게 없다. 뒤이어 말라 버린
코스모스를 잘라주었다.
코스모스는 가을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던



꽃들인데 씨를 받아 놓고 모조리 없앴더니
비로소 밭둑이 드러났다. 키 작은 나무들이
코스모스 군락에 파묻혀 얼굴도 보이지 않았는데
햇살을 구경하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다.
어떤 일이건 시작할 땐 간단히 끝날 줄 알고
덤비게 되지만 대충 해결되는 일은 없다.
뒷일까지 꼼꼼히 정리하려면 하루 일로
마무리 안 될 때도 있다.
그런데 일 욕심이 생기면 그날에 끝내려고
무리를 하게 마련이다. 지난주엔 폭우에 무너진
오솔길을 다져주는 작업을 했는데
그 일로 몸이 힘들었는지 몸살로 며칠 누워있었다.
이 가을엔 몸살이라도 나야 쉴 수 있는 것이다.
'삼매경'이란 표현이 있다.
종교의 경전들이 즐비하지만
'삼매경經'만큼 수승한 게 없는 것 같다.
어떤 일에 집중하면 힘든 것도,
시간 가는 것도 잊어버리는 경지가 삼매경이다.
어디 독서삼매경만 있을까.
풀을 뽑더라도 그 일에 몰두하며 그 일을 즐기면
그것은 '풀 삼매경'일 것이다.
정원 일을 해보면 절로 삼매경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두세 시간은 앉아
무심코 일을 하게 된다.
한참 자태를 뽐내었던 봉선화도 생명이 다하여
하나둘 쓰러진 것을 뽑아 주었다.
그 일도 한 시간이나 했나 싶었는데
작업을 마치고 보니 세 시간이나 지나 있었다.
이렇듯 정원에서의 시간은 금방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 무엇이든 즐길 수 있다면
그 일은 노동이 아니라 취미다.
정원 일은 취미로 접근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재미와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겐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야 삶이 시들지 않는다.
그 일을 통해 삶에 탄력이 생기고 활기가 된다면
건강한 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와 리듬으로 자신을 가꾸어 가려면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
일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사라지면
시들어 버린 꽃과 같이 생기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쁜 가을을 보내고 있지만
언제나 나를 웃게 만들고 위로해 주는 것은 꽃이다.
요즘 구절초가 만발하여 여기저기 꽃길이다.
며칠 전부터는 국화가 피기 시작하여
울긋불긋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동국은 아직 꽃대만 가득한데
감국은 앙증스럽게 자태를 드러냈다.
개화의 순간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찌 저리 자신만의 선명한 색을 지니고
있을까 싶다. 그 어떤 물감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신비한 생명을 지니고 있다.
해마다 때를 맞추어 방문하는 가을 손님이라서
더 반갑다.
화가로도 잘 알려진 민병도 시인은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들꽃에게 삶을 물었다
흔들리는 일이라 했다
물에게 삶을 물었다
흐르는 일이라 했다
산에게 삶을 물었다
견디는 일이라 했다

가을꽃이 그냥 피었겠는가.
꽃을 피우기까지 흔들리며 아파하며
모진 시간을 견뎌왔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세월이 한 송이 꽃으로 승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을 터이다.
삶의 과정이 흔들리는 일이며,
흐르는 일이며, 견디는 일이다.
세상 만물 모두가 삶이 그렇다며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순탄하게 가는 인생길은 없다.
넘어지고 상처받을 때마다 삶의 나이테는
한 겹씩 성장하는 것이다.
가을꽃이 그 진리를 대변해 주듯
절정의 시절을 맞이하고 있다.

● ●감로의 글

무설설無說說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법주대불 미륵존 法住大佛彌勒尊　수정문장 최당당水晶文藏最堂堂
청정수도 기하인淸淨修道幾何人　무설설법 불문문 無說說法不聞聞

법주사에 큰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시고, 수정봉과 문장대가 최고 아름답구나.
청정하게 수도하시는 분은 몇 사람이나 되던가! 설할 바 없는 법을 설하는 것을, 들음 없이 듣는구나.
※ 설법을 해도 법法을 설한다는 상相이 없고, 설법을 들어도 법을 듣는다는 집착이 없이 듣는 모양을 말한다.

도오선자道吾善者　시오선우是吾善友
도오악자道吾惡者　시오사야是吾師也

나를 착하고 좋다 하는 사람은 나의 착한 벗이고
나를 악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다.
(나를 헐뜯는 사람은 나의 아만과 교만을 방지해 주기에 좋아할 사람은 아니지만,
참고할 사람이지, 가까이하기는 어렵다.) ※도道라는 뜻은 이르다. 말하다는 뜻.

세한연후 지송백歲寒然後 知松柏(지후조之後凋)
사난방현 장부심事難方見 丈夫心

날씨가 추운 연후에 비로소 소나무 잣나무가 푸르름을 알겠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나서야 비로소 대장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선불교의 사대종지 四大宗旨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1. 불립문자不立文字 :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

글자 자체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을 하는 게
문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자를 통해서 익히고 이해한다.
하지만 진리는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른다는 뜻이다.

2. 교외별전敎外別傳 : 경전 밖에서의 가르침

마음을 깨닫는 것을 중시하여 마음으로
가르침을 전수. 가르침 말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처럼
부모나 형제, 스승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따라 한다. 우리는 말뿐이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한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에서만 보고
그것을 온전히 익히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생애처럼 고뇌와
경험 실패 등을 거쳐 부처의 경지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3. 직지인심直指人心 : 곧바로 내 마음을 바라보다

부처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바로 내 마음에서 찾으라는 말.
극락은 이행만리 먼 곳에 있지 않고
지옥도 그렇다. 이 모두는 이 사바세계에 있다.
부처님도 우리 주위에 있고
관세음보살도 우리의 이웃에 함께 한다.
나에게 진정으로 가르침을 주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이는 내 옆에 있다.

4. 견성성불見性成佛 : 내 마음속 불성을 깨우치면 부처가 된다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 마음이 곧 부처이다.
불교의 핵심어이다.
우리는 자주 자신을 중생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인지하고 부처와 다른 존재임을 자각한다.
부처도 중생이고 수행자인 나 역시 그렇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자각해야 한다.
깨달음은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
의지하지 않는 그대는 모든 것을 환히 알고
모자람이 없다.
타인에게 배워 미혹되지 말고



내면에서나 밖에서나 만나기만 하면 바로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가까운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그래야 비로소 해탈을 얻어
사물에 구속되지 않고 깨달아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의존하는 마음은 독약이다.
지혜와 깨달음은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 생겨난다.
깨달음은 깨달은 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 말은 임제선사의 가르침이다.
우리 마음에 중생이 있고 부처도 있다.
나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를 키우는 것이
진정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다.



10월 15일 야단법석한 마당



10월 15일 천년의 향기6차



10월 17일 도불기원법회



멋있는 단풍이 있는 법주사

쾌청한 하늘, 풍성한 단풍과 함께하는 법주사

큰 도움을 주고, 즐거울 때에나

괴로울 때에나 변하지 않으며,

좋은말을 해주고 동정심이 많은 친구가 되라

법구경

2022. 11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10.8 약사재일 합창단법회	2 9	3 10	4 11	5 12 광명진언기도 어린이법회
6 13	7 입동 14 다도반법회	8 15 보름 동안거결제	9 16	10 17	11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12 19 어린이법회
13 20 만공대선사다례	14 21	15 22	16 23	17 24 수능100일기도 회향 관음재일	18 25	19 26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20 27	21 28 다도반법회	22 소설 29	23 30	24 11.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25 2	26 3 신중기도회향 어린이법회
27 4	28 5	29 6	30 7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수능백일기도



2023년 수능 100일기도가 봉행되오니
수능 및 각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불자님들은
합격의 원을 세우고 동참하시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입　　재** : 불기 2566년　**8**월 **10**일(음력　7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66년 **11**월 **17**일(음력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1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법주사 솔향기 다도회 회원모집

법주사에서는 문화의 꽃이라 칭송되는
다도회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뜻있는 신도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연락처 : 010-5498-5546 (회장)
010-7400-1388 (총무)

법주사 합창단원 모집

불심이 있고 불법홍포에 관심이 있으신 분
"함께해요"

연락처 : 010-5262-0871 (단장)
010-4019-2033 (총무)

동안거 백일기도

법주사에서는 스님들의 겨울 공부기간 동안인 동안거冬安居를 맞이하여
100일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에서 스님들이 겨울 한철 동안 화두 타파를 위해 정진하듯
불자들도 이 기간에 원력을 세워 정진한다면 개인의 신행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위해 봉행하는 동안거 특별기도에 많은 관심과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불기 2566년 **11**월 **8**일(음 10월 15일)
- **장　　소** : 대웅보전
- **동 참 금** : 백일기도 **2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 **5**일(음 10월 12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 2022년 **11**월 **19**일(음 10월 26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 **2**만원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생전예수재 49일 기도 봉행

법주사에서는 살아 있는 동안에 공덕을 미리 닦아 사후에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수행과 회향을 실천하는 "자리이타행"으로 살면서
지은 죄와 빚을 갚는 의식으로 자신의 업을 참회하고 앞으로 악업을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보시를 통해 공덕을 쌓는 의식입니다.
또한 단순한 신앙이 아닌 신행信行으로 스스로 실천하는 불교의 가장 적합한 실천행으로써
불자라면 반드시 동참해야 할 의례입니다.
속리산 법주사에서는 계묘년 윤2월에 맞춰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생전예수재라는 인연을 통해 법주사 불자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회하며
함께 보시하는 공덕을 통해 스스로 복을 짓고 스스로 복을 받는 불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생전예수재 봉행일정**

- 입재 : 2월 20일 (음력　2월　1일) 월요일
- 1재 : 2월 26일 (음력　2월　7일) 일요일
- 2재 : 3월　5일 (음력　2월 14일) 일요일
- 3재 : 3월 12일 (음력　2월 21일) 일요일
- 4재 : 3월 19일 (음력　2월 28일) 일요일
- 5재 : 3월 26일 (음력 윤2월　5일) 일요일
- 6재 : 4월　2일 (음력 윤2월 12일) 일요일
- 회향 : 4월　9일 (음력 윤2월 19일) 일요일

■ **동참금** : 1인 100,000원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